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안내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사립학교교직원·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 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유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실 경우에는 아래 신고센터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1. 촌지 유형

- 가.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나.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2024학년도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청렴교육 연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대상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NO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단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대상

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4

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5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NO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6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NO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의 비의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9조제3항제3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7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NO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8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YES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Q9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YES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Q1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YES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Memo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학부모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 라고 할까요?



교권은 권익주체인 교원에게는 능동적인 개념이지만,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을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여기고, 교권남용을 이유로 교권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특정 위법행위를 직접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모든 교육주체가 향유하는 공통의 이익이므로, 교육활동을 보호함에 있어서 교육주체 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교권 침해의 유형

교 권 침 해

-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침해 유형

- 학생: 폭언, 지시 불이행, 지도 불응, 명예 훼손, 수업진행 방해, 폭행, 성희롱, 재물 손괴 등
- 학부모: 폭언,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등

인성·인권교육

1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삶에 녹아나는 공간은 가정입니다. 인성은 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됨을 갖추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인성교육은 생활에 가까운 단계에서 심오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접근 방향이 다양합니다. 가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대화’입니다.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 학생의 인성을 형성할 수 있다면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다음과 같이 학생과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밥상머리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

1. 스마트폰과 TV보기가 아닌 ‘대화’를 하는 시간

- 밥상머리 교육을 위해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TV를 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대화가 활발해지고, 가족 간의 두터운 친밀감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빨라지는 언어 습득 능력

- 미국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 박사 연구팀이 3세 자녀를 둔 83개 가정을 대상으로 2년간 아이들의 언어습득 능력을 연구한 결과, 연구기간 동안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습득한 어휘는 2,000여 개였으며, 그 중 가족 식사 중 배운 단어가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3 밥상머리 교육 과정

- ▶1단계: 건강한 영양 식단 준비하기(요리의 재료, 영양소)
- ▶2단계: 재료 준비하며 생활의 지혜 배우기(재료 고르는 법)
- ▶3단계: 함께 요리하며 친밀감 높이기(요리하며 칭찬, 지지와 스킨십)
- ▶4단계: 완성된 요리 맛보며 예절과 사회성 길러주기(식사 규칙과 예절)

4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5 가정에서의 인권교육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6

의사소통,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1 나-전달법(I-Message)으로 대화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2. 나-전달법(I-Message)의 3가지 요소

- 사실 :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 영향 :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 느낌 :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YOU-Message	I-Message
너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서 무얼 하다 오는 거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학교 끝나고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으면(사실)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영향)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느낌)

3. 나-전달법(I-Message)을 긍정적 감정 표현에도 사용하세요.

네가 미술 시간에 어지럽혀 놓은 물감을 정리해 놓으니(사실), 책상이 깨끗해져서(영향),

내가 기분이 참 좋아(느낌)

7

우리 가족의 인권 지수는?

♣ 어린이가 체크(v)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 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부모님께서 체크(v) 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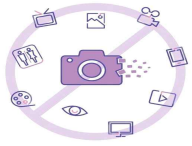




내 용 (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오염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 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 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 유형 -이런 행동은 아지 말아요!

유형	예시 상황
 혐오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병, 나이 출신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선동하는 발언·몸짓 등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학생을 차별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각종 괴담,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매개물(동의 없이 찍은 사진,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을 다운로드 및 소지하거나 보는 경우▶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신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을 인식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대화명 테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게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언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1. 피해 학생인 경우

- 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하세요
- 나.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주세요.
- 다.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 라. 먼저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2. 가해 학생인 경우

- 가.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나.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 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다.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 라.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마. 가해 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바.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사. 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1.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에서는 사안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합니다.

2. 사안에 따라 2가지 경우로 처리됩니다.

가. **학교장 자체 해결** : 피해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경미한 사안(아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에 해당되는 경우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미한 사안 요건에 해당됨
- ②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

-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 : 사안에 따라 조치를 받음

- 경미한 요건 미충족 및 피해학생 측 미동의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담당 장학사,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

부모님과 함께 과학적이고 올바른 성 의식 기르기

성교육은 남,녀의 성 관계에 대한 지식과 임신 및 생리학적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가지게 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인간교육입니다.

1 부모의 성교육의 필요성

아이들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스마트폰 등으로 무분별한 성문화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기 성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정보라도 부모가 전해 주면 더 믿게 되고 영향력이 크기에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하기

○ 디지털성범죄 예방 3가지 수칙 [출처: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1	2	3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mall>* 개인정보 예시 :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연락처 번호, 학교명, 교복 등</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파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small>* 링크 예시 : '너의 사진/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 '택배가 분실 되었어요' 등의 메시지가 붙은 링크</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전송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3 초등학교 성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 첫째, 신체적 발달을 설명해 주세요.

- 사춘기가 되면 나타나는 2차 성징과 관련된 신체발달을 설명합니다. 저학년은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이전이므로 막연한 호기심이 생기는 시기임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성은 곧 생식기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생명의 소중함, 남,녀의 다른 기능과 서로 배려하는 점 등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 둘째, 이성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 초등 저학년이 되면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됩니다. 이성 관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 셋째, 성폭력 예방에 대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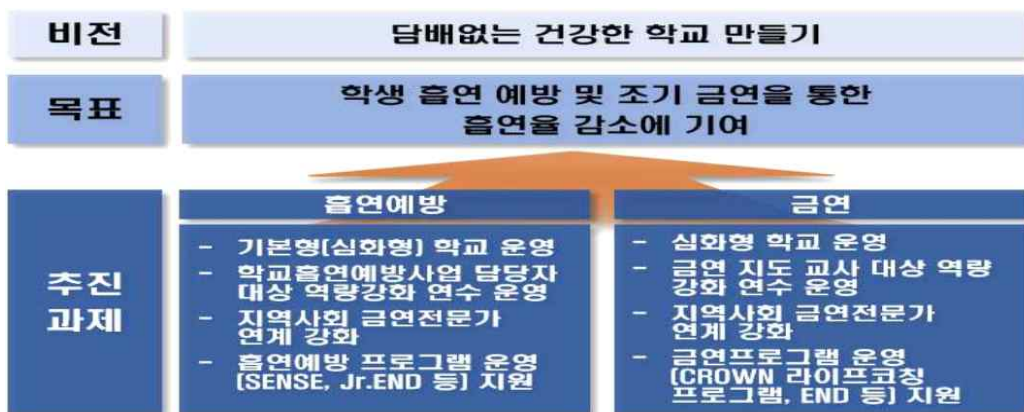
- 자녀들이 위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흡연 및 음주 예방을 위해 기억해주세요!

1 흡연 예방 교육이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시기의 흡연과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약물중독 및 청소년 비행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한 한두 번쯤의 흡연을 조기에 막지 못하면 청소년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는 아이들에게 흡연 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학교흡연예방 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3 청소년 흡연 및 음주의 문제점

- 세포 성장 및 분열이 왕성한 청소년에게 담배의 유독 물질은 쉽게 더 침투, 유해한 영향을 줍니다.
- 니코틴 중독성이 성인에 비해 심하고 담배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 15세 이하 흡연자의 경우 25세 이후 흡연자보다 폐암 사망률이 최대 18.7배 높습니다.
- 청소년 음주의 경우 자신의 주량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들을 통해 주로 이뤄지므로 담배나 마약 등 다른 약물이나 가출, 절도 등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소년기 흡연과 음주는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고 사고 능력, 정서적 발달을 저해합니다.

4 흡연 및 음주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금연 가정의 자녀들은 나중에 흡연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자녀에게 담배 및 술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어른이 되면 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 금주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양성평등 교육

1 양성평등 교육의 정의

○ 양성평등(존중)교육이란?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양성 중 어느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남녀 각각의 타고난 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2 가정에서 자녀에게 양성평등 감각 길러주기

○ 자녀에게 양성평등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행동을 바로 잡는다.

: 아이는 부모의 행동과 말, 인식을 그대로 반영 및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 스스로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다.

: 아이에게 '남자니까', '여자니까',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성,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면 성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 고정관념이라는 틀에 갇히기보다 다양한 체험에 도전해보고,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세요.

3. 놀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남아는 운동과 칼싸움, 여아는 소꿉놀이와 인형놀이 등의 성 고정관념에 의한 역할 보다는 성역할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건 구입 시 색상, 종류,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부모의 편견 없이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콘텐츠를 파악한다.

: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TV, 인터넷 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장면은 없는지,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5. 집안일은 부모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성역할 고정관념은 가사와 육아 부분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합니다.

생명존중 교육

1 자살방지 교육을 통한 학생 생명 존중 교육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11.5%의 학생이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2.4%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여러 가지 신호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어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언어, 행동, 정서표현의 신호들이 무엇인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는 만 10세 경입니다.

- 만 10세 이전의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2 청소년기에 자살이 많은 이유

-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지적 변화
- 자아발달의 미숙, 과도한 입시 경쟁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갈등
- 가족 구성원 간의 결속력 약화
- 자살에 대한 태도의 변화

3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2)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3)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4)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5)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6)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7)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8)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 9)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10)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11)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합니다.
- 12) 이상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4

자녀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너 요즘 많이 침울해 보이는데, 혹시...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네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2)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를,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3)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죽겠다'는 자녀의 말이 단순한 투정으로 느껴지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줍니다.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 도와줄게"

"너 생각보다 엄마는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

5)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 줄 테니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보기엔 네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함께 병원에 가보지 않을래?"

6)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자녀의 요구조건을 일부 들어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외식이나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처방입니다.

7)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의식이 없는 경우: 먼저 119에 연락한 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시행.

- 뇌세포는 4분 이내 산소공급이 안되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빠르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인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일반인은 “응급환자를 발견한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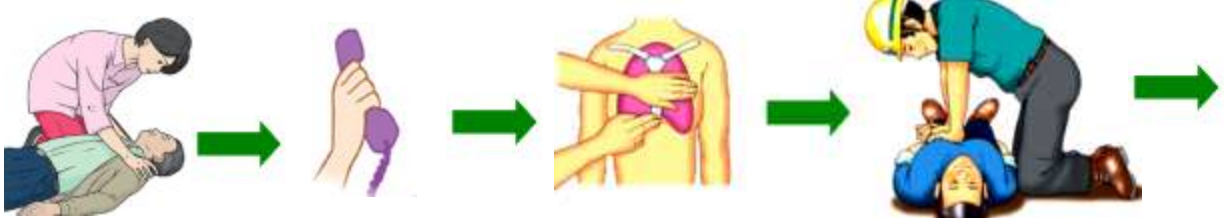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에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구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의거 선의의 응급구조자의 행위를 보호함(일반인도 생명이 위급한 경우 응급구조를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1.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서 기본소생술 순서 :

가슴압박(C)-기도개방(A)-인공호흡(B) 순으로 실시



① 의식확인 ② 119신고 및 AED 요청, 압박위치:흉골의 1/2 아래쪽 ③ 가슴압박(30회):분당 최소100회,5cm 깊이



④ 기도유지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림
(경추 등 손상이 없을 때)

⑤ 인공호흡(2회)
가슴이 올라오도록

⑥ 가슴압박(30회)과 인공호흡(2회)의 반복
: 의식이 돌아오거나, 의료진이 올때까지

※ 인공호흡을 하기 어려운 경우 가슴압박만 유지합니다.

※ 심폐소생술 동영상 안내: 국민안전처-재난안전-교육, 홍보동영상 참고

※ AED (자동 심장 제세동기) 사용법 - 심정지 응급상황 이외에는 절대 사용금지.



① 전원켜기 ② 2개의 패드부착 ③ 제세동 시행 ④ 심장리듬분석
⑤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 (AED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라 시행)

※ 기도폐쇄 : 복부 밀어내기법(Heimlich 법) -음식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일 때

- 환자의 뒤에 서서 환자의 다리 사이에 처치자의 한쪽 발을 넣어서 지탱한다.
- 양팔로 허리를 감싼 다음 처치자의 한쪽 손을 말아 쥐고 환자의 검상돌기(명치)와 배꼽의 중간에 댄다.
-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싼 후에 상복부를 후상방으로 강하게 밀쳐 올리는 것을 반복한다.

감염병 예방 교육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약 5일)
유행성 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1~2주)
코로나19	코물, 기침, 두통, 호흡곤란, 인후통 등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 인플루엔자 등교 지침

등교 중지 기간	5일 ※5일 계산법: 1일 = 아침 ~ 저녁 예) 3월 4일 11시경 병원 진료를 통해 확진 판정받고 약 처방 받음. → 등교중지 기간: 3월 5일~3월 9일 / 등교일: 3월 10일	
등교 전 확인 사항	등교중지 마지막 날, 감염에 의한 증상이 사라졌는지 확인. ※증상: -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 - 인후통, 코물, 코막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 구토, 오심, 설사 등 소화기 증상	
	증상 지속 시 조치 사항	등교 전 병원 진료를 통해 약 복용 및 격리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진료서)를 받아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필요기간 동안 등교중지 유지.(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

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 학생이 타인에게 전염가능한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1)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 후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다.
- 3)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감염병 전파 방지

- 1)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2)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으로 면역력을 높여야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이해 교육

1. 통합교육 안내



학교는 작은 예비사회입니다.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수업시간의 일부나 전부를 함께 교육받는 형태로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학생은 또래집단과 지내며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하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나와는 조금 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 특수교육 관련 용어 및 장애 이해

**특수교육
대상자**

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은 아닙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학생이어도 장애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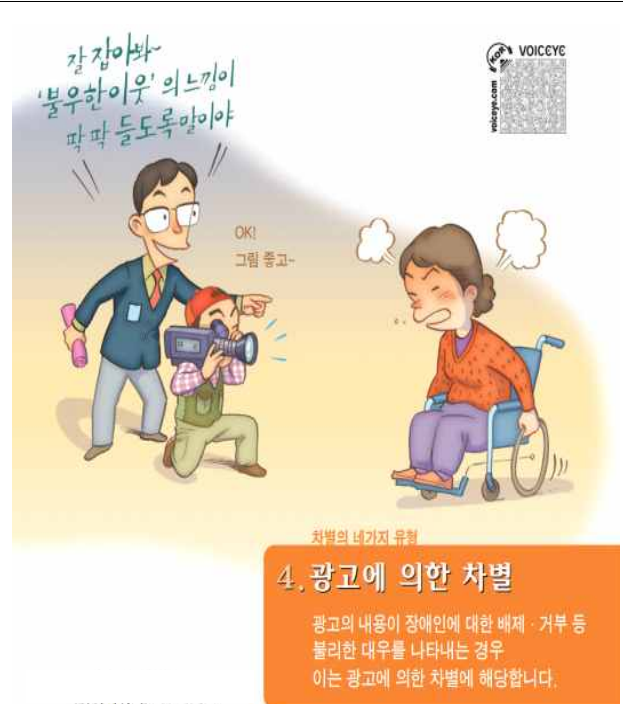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나) 차별의 유형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08)



4.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

- ▶ 장애 유무,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언어, 문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가 바로 인권입니다.
- ▶ 평화롭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장애학생의 눈높이를 맞추고 바라보기, 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낀다는 사실 인정하기, 이것이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름길입니다.
- ▶ 소외, 배제, 따돌림, 놀림의 그늘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의 학교문화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

Q. 장애가 있거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눈을 마주치고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둘째, 장애인이나 특수학급(도움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셋째, 휠체어를 타거나 도움을 받아 걷는다고 해서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넷째,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다면 생각 중이나 해야 할 일이 있어 바쁜 것이니 잠시 뒤 다시 물어봐주세요.

다섯째, 장애가 있다고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같은 풍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늘을, 어떤 사람은 나무를, 또 어떤 사람은 들에 피어 있는 꽃을 바라봅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장애라는 편견을 갖게 되면 사람보다 장애를 먼저 보게 됩니다.

편견의 눈을 벗어나면 장애가 아닌 사람이 먼저 보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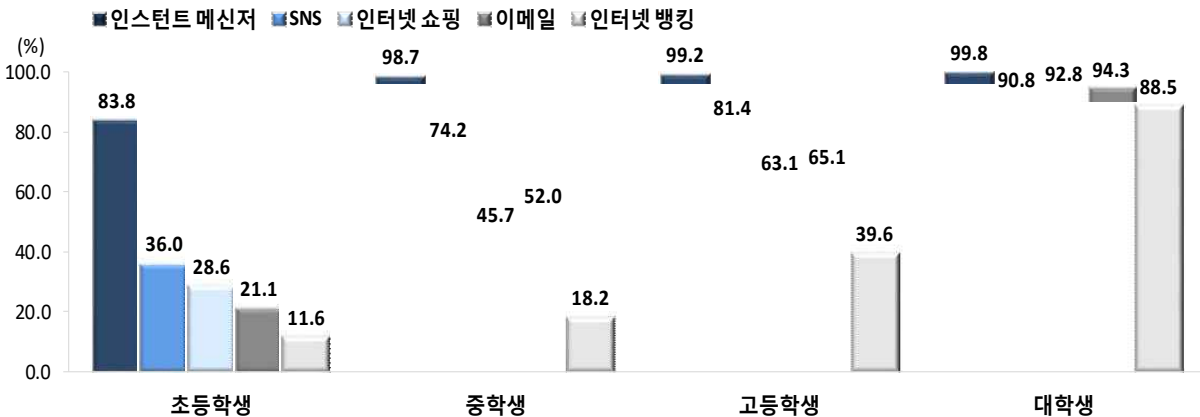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

1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보급의 확대 등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양질의 교육자료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유해정보, 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양면성을 지니면서 학생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여가시간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까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20년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인스턴트 메신저(83.8%), SNS(36.0%), 인터넷 쇼핑(28.6%), 이메일(21.1%), 인터넷 뱅킹(11.6%) 순입니다.

10대 청소년 35.8%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 '20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35.8%)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입니다.
 - 중학생 39.6%, 고등학생 35.0%, 초등학생 30.5% 순입니다.
- '20년 10대 인터넷 이용 시간은 일주일에 27.6시간으로 2019년 대비 10.0시간 증가하였습니다.

3

스마트폰 과의존일까요?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척도

요인	항목
조절 실패	☑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
	☑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현재성	☑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문제적 결과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과의존 척도

※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 총점 30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30점 이하 ~ 23점 이상 :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총점 22점 이하 : 일반사용자군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의 특징

청소년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갈등이나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함으로써 ICT 역량 발달을 저해시킬 위험성이 높은 상태

성인

일상생활의 상당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소비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갈등이나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함으로써 ICT 역량 발휘를 억제할 위험성이 높은 상태

스마트폰 사용습관 확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심센터 누리집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동척도' 활용

<http://www.iapc.or.kr>

4

스마트폰 과의존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1. 우뇌증후군

- 스마트폰 동영상은 좌뇌만을 강하게 자극하여 우뇌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우뇌가 발달되어야 하는 직관적 사고기에 좌뇌만 발달하여 좌우 뇌 균형이 깨짐
- 충동성 과잉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2.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게임 등을 지나치게 오래할 경우 발생
-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스마트폰에 몰두하여 뇌가 팝콘처럼 튀어 오르는 정보에만 반응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현실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



3. 학습능력 저해

- 빠르게 움직이는 동영상에 익숙해져 정적인 활동인 독서가 어려워짐
- 자극 -> 정리 -> 표현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스마트폰의 경우 보통 '자극'만 이루어짐

4. 언어 발달, 정서 인지 발달에 악영향

- 스마트폰 동영상은 단방향으로 이루어져 '듣기', '말하기'의 양방향 소통 시간이 줄어들어 언어 발달의 기회 감소
- 가톨릭대 심리학과 발달심리연구실 실험결과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유아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짐



‘만 2세’ 전에 아이가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해주세요.

- ☞ 아이앞에서는 가급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 ☞ 과의존 예방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나친 사용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교육용‘앱’보다는 ‘책’을 읽어주세요.

- ☞ 아이와 함께 책을 읽으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른 시기에 노출됐다면, ‘단번’에 끊어주세요.

- ☞ ‘일관적인’태도로 ‘단호하게’ 스마트폰에서 멀어지도록 지도해주세요.



자녀와 보호자의 사용습관을 함께 점검해보세요.

- ☞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해 사용 습관을 확인해보세요.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주세요.

- ☞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살펴봐 주세요.
- ☞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 ☞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보세요.
- ☞ 함께 정한 규칙은 가족 모두 숙지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주세요.
- ☞ 스마트폰을 끌 때는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자녀와 가까워질 수 있는 대안활동을 함께해주세요.

- ☞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녀의 건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습관은
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로 만들어집니다!

PC유해정보차단-그린아이넷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방송통신 정보를 이용하도록 구축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입니다.



<http://www.greeninet.or.kr> 에서 설치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포털사이트 ‘그린아이넷’ 검색을 통해 다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스마트보안관, 아이스마트키퍼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정보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SW입니다. 부모 스마트폰에 설치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 앱 · 웹사이트 관리, 자녀 스마트폰 이용 통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 및 자녀의 스마트폰의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T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의무 교육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해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도구를 사용하거나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정서학대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시키는 행위
성학대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등
방임·유기	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유기(아동을 버리는 것)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관련벌칙(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 시설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이돌보미(아이돌봄지원법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수행인력(드림스타트)

4 아동학대 신고요령

1.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확보)

2. 아동학대 신고(112번)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경찰서 신고
- 신고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3.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서에 연락



5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6 가정폭력 신고의무 규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여성긴급전화(☎1366)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 112

가정폭력 예방 교육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하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가정폭력 인권 감수성 테스트

▶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해보세요.

순	질문	응답	
		예	아니오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남편, 아내), 동생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2	누군가 맞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 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의 8개 문항 중 “예”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 방법

▶ 가정폭력 발생 및 발견 즉시 **112**로 신고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

도박예방 교육

1.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성행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 및 도박

1)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 절차 없이 이메일 및 계좌번호만으로 가입 가능하여 쉽게 빠지고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다리 게임>

- 사행성게임 : 불법스포츠도박(사설토토), 불법인터넷도박(사다리, 달팽이, 소셜그래프등)

※ 게임 속 유료 확률형아이템은 사행성이 높아 주의요망

2)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청소년 단타투기 확산

2. 불법도박을 하게 되는 이유

- 1) SNS를 통한 불법 사행성게임 사이트 접근
 - SNS, 인터넷 방송(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확산
 - 추천인 제도를 통한 회원모집(모집책인 청소년에게 신규가입자 손실액의 20~30% 지급)
- 2) 가상화폐 거래소도 불법 사이트처럼 성인인증 절차가 없이 가입 가능하여 확대 양상
 - 또래문화의 영향 :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한다
 - 가치관 혼란 : 직업의 가치보다는 돈이 우선
 - 24시간 거래소 운영으로 강한 중독성

3. 학부모님의 역할 안내

- 1) 자녀의 PC 및 스마트폰 사행성게임 어플 확인하기
- 2) 청소년 차단 프로그램 설치(도박, 성인물 키워드)
- 3) 주기적인 통장거래내역 점검하기(자녀 동의 중요)
- 4) 자녀 앞에서 도박하지 않기(스포츠 토토 등)
- 5) 가상화폐에 대한 자녀의 생각나누기
- 6)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고민이나 스트레스는 어떤 것인지 관심 기울이기

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 뉴디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kcgp.or.kr>) → 하단 배너 클릭 → 채널이동



비만예방 교육

1. 비만이란?

일반적으로 비만이라고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체중과다)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비만증은 우리 신체 내에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거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소아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일단 증가된 지방세포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상 어린이보다 75-80% 이상 높으며, 여러 가지 성인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치료 및 예방을 해야 합니다.

2. 비만도 계산법

A) 비만도를 알기 위해서 표준체중을 먼저 구하기 --- ★ $\text{표준체중} = (\text{키} - 100) \times 0.9$

B) 비만도를 구하기 --- ★ $\text{비만도} = (\text{실제체중} - \text{표준체중}) \div \text{표준체중} \times 100$

C) 비만도를 적용해 보기

★ 비만이란 체중이 표준 체중보다 20%이상 되었음을 말합니다.

경도 비만:20% 이상-30% 미만, 중등도비만:30% 이상-50% 미만, 고도비만:50% 이상

3. 비만 관리법

-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적당량을 규칙적으로 먹고, 20회 이상 씹어 먹기
-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조금만 먹기(야식 먹지 않기)
- 야채를 많이 먹고, 튀긴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적게 먹기
- 식사 후 바로 양치질하기
- 매일 30~60분 동안 땀이 나도록 운동하기
- 자신의 정상 체중을 알고 유지하기
- 책, TV 등을 보면서 음식을 먹지 않기

▶ 100Kcal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량 및 활동량

운동량 또는 활동량	소요시간 또는 횟수	운동량 또는 활동량	소요시간 또는 횟수	운동량 또는 활동량	소요시간 또는 횟수
천천히 걷기	28분	달리기	1.2km	팔굽혀 펴기	12회
빨리 걷기	10분	정지된 자전거타기	6분	수영	10분
계단 오르기	120계단	턱걸이	6회	탁구	10분
등산	24분	윗몸 일으키기	18회	배구	32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학부모 인식개선

1

선행학습의 문제점

□ 선행학습: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가.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나.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 점검시기: 학기별 2회 이상

※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1, 2학년 영어는 예외

다.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라.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